

새만금 투자 2년간 10조 유치 성공... '기업 유토피아'로 뜬다

만 그대도 '문진성'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기업들까지도 새만금 투자에 나섰다. 이는 수저로도 드러난다. 기업들이 지난 2년간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만 도무지 10조원이 넘는다.

기업들이 새만금에 몰리는 이유는 각 종 혜택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의 기업 및 출원 투자유치 전무이 맞물린 결과다.

부지가 부족할 정도로 기업 투자기를 바라지 정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7개 공구를 2025년까지 조기에 조성한 지역이다. 여기에 산업용지의 용지와 위치 등을 재수령해 기업이 투자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정부기 출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조100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유인한 유망한 1조5000억원의 66%에 달한다.

투자유치로 한 기업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LG화학과 LG화학, 두산퓨얼셀, 에이원 신소재 등 국내 첨단기업에서부터 중국 이차전지 기업 톰라그림 등 해외 기업들도 투자에 나섰다.

새만금국가산업단에는 현재 28개 기업

새만금개발청의 성과와 비결

각종 정책적 지원·다양한 인프라 국내외 28개 기업 기동·21개 확공 적극적인 '맞춤형 마케팅' 주요

부지 부족할 정도로 투자 '문진성' 2025년까지 7개 공구 조기 조성 2030년까지 2단계 산단도 완료

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21개 기업이 확장하는 등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새만금에 기업 투자 유치가 급격하게 늘어난 배경은 새만금의 넓은 부지의 확장 가능성, 탄탄한 인프라 구축 계획, 정부 지원 등이다. 기업들이 투자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국가산업단은 2008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조6000억원을 들여 18,400ha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부지는 용도별도 산업용지 1017만㎡, 복합용지 54만㎡, 상업업무시설 용지 110만㎡, 주택건설 용지 80만㎡, 공공시설 38만㎡ 등으로 나뉜다.



두산퓨얼셀 새만금 공장(왼쪽)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공구 대림공사 확공식 모습



이재현 기자·새만금개발청 제공

소화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도 병행하고 있고, 입주 기업들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물근거스도 제공 중이다.

이처럼 각종 인프라의 기업 친화적 인형, 새만금개발청의 홍보 효과가 맞물리면서 현재 1·2·5·6공구 산업용지 6,300ha의 분양률이 88%를 기록했다. 신규 기업들의 투자가 이르면 2025년 주 기업들의 투자를 이끈다고 기대된다.

주 기업들의 투자를 이끈다고 기대된다. 주 기업들의 투자를 이끈다고 기대된다. 주 기업들의 투자를 이끈다고 기대된다. 주 기업들의 투자를 이끈다고 기대된다.

우선 1단계로 오는 2025년까지 기업유

치 활성화를 위해 전체 9개 공구 중 1·2·3·5·6·7·8공구 등 7개 공구의 조성을 완료하고 분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5·6공구 등 준공하고 3·7·8공구는 2025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하여 산업단지 전체 18,400ha(59만평)의 76.2%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총 사업비 2조6000억원의 36.1%인 945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24년 올해 공정을 41.8%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2027년에 공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1년 앞당겨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새만금개발청은 기업들의 더 많은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전체 개발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 용지